

1900년에 동서문물의 보고 돈황에서 발견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깊이읽기

정병삼_숙명여대 한국사학과

방대한 양의 유물 중에서 이채를 띠는 것이

중아시아에 대한 식견과

《왕오천축국전》 사본寫本이다.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동서문화 교류연구업적 토대로 펼친

앞뒤가 떨어져 나간 두루말이 사본 하나.

세로 28.5센티미터에 길이는 358.6센티미터, 227행 6,000자 정도의

풍부하고 탁월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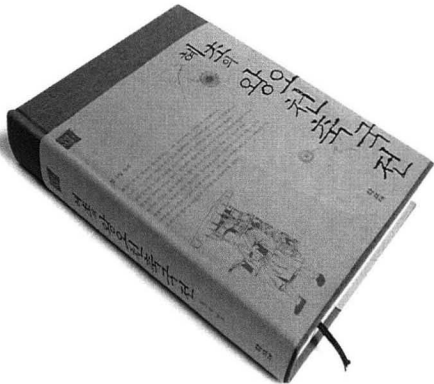
내용을 판별해 내고 책 이름을 찾아준 것은

프랑스의 문헌학자 펠리오였다.



본격적인 역주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그동안 국내에서도 《왕오천축국전》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몇몇 논고는 발표되었지만 본격적인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단순한 문학적 기행문도 아니고, 한 나라에 대한 풍물을 소개한 글도 아니고 불교적 순례기도 아닌, 이 모든 것을 합쳐 미지의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방대한 여행기이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글자를 따라 번역한 경우는 몇 차례 이루어졌지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역주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1992년에 일본에서 19명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상세하게 검토한 것이 가장 풍부한 성과였다.



이번에 새롭게 이루어진 정수일의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그런 의미에서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체계적인 첫 연구서라고 할 만하다. 동서문화 교류연구에 탁월한 식견과 업적을 가진 저자는 일찍이 혜초의 서역기행과 문화교류에 대한 두세 편의 논문을 쓴 바 있다. 그리고 그간의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 역주서를 내놓았다.

세계의 관심을 모은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전》은 열정에 넘치던 젊은 신라 승려의 여행기이다. 해당 지역의 불교계 현황과 지리 환경 그리고 풍습과 산물이나 언어 또는 정치 상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안에 담긴 소중한 문화교류 내용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인도 구법가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 손꼽히는 것이 399~412년에 육로와 해로를 거친 법현과 627~645년에 육로로 왕복하고 《대당서역기》를 남긴 현정이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해로로 가서 육로로 돌아온 여정에 따라 여러 나라 이야기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기록하고 때로는 시를 통해 감회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인도와 중아시아에 대한 8세기 전반의 유일한 견문기이자 독특한 매력을 가진 문화유산인 것이다.

혜초는 신라에서 태어나 중국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밀교의 높은 경지에 이른 고승이다. 그러나 700년경에 태어나 780년대에 돌아간 것으로 여겨질 뿐 구체적인 생애의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무렵 신라에는 많은 구법승들이 있었다. 7.8세기에 걸쳐 80명이 중국에 가서 불법을 익혔고, 15명은 인도에까지 갔다. 어렵고 험난한 인도 구법 길에서 15명 중 10명은 객사하였고, 중국에 3명, 그리고 고국에까지는 2명만이 돌아왔다.

두툼한 분량의 이 책은 전체의 삼분의 이 분량을 차지하는 원문의 역주 앞에 기행 노정 지도와 관련 사진에 이어 상세한 해설을 두고 뒤에는 친절한 찾아보기를 붙여 깔끔한 장정으로 마무리하였다. 혜초와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분량의 해설부분에서는 먼저 혜초의 생애를 충실하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혜초의 생애는 명확하지 않은 게 대부분인 만큼 추정 근거를 가능한 한 제시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어 책의 발견 이후 그간의 연구성과를 치밀하게 소개하였다. 현존하는 사본의 분량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 이 사본과 비교되는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의거본을 비교하여 현존본의 원래 분량을 405행에 1만1,300여 자로 추정한 것도 치밀한 분석의 결과이다.

현존본의 성격과 관련하여 저자는 현존본이 원래 내용 그대로 사록한 것이 아닌 《일체경음의》본의 절략본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는 대체로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그러나 현 사본이 불교적 내용을 너무 소략하고 시가 5수 실려 있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여행 현장의 생생한 감정을 담기 위한 초본이고 이를 토대로 3권짜리 정본이 이루어졌다는 견해도 있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왕오천축국전》을 처음 발견한 펠리오의 초상과 《왕오천축국전》 원본

이 글을 쓴 정병삼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대학원에서 불교사를 공부했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로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의상의 화엄사상 연구, 통일신라 관음신앙을 비롯한
 신라 불교사 관련 논저와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오늘 나는 사찰에 간다》와
 같은 불교문화 관련 책을 펴냈다.
 혜초와 8세기 신라불교에 관해 살핀 글과
 왕오천축국전을 간단하게 번역 정리한 바 있다.

동서문명 교류의 현장

다음에 나오는 서역기행 노정은 저자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풍부한 식견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현재 잔본에 보이는 30여 개 나라 중에서 혜초가 직접 갔던 나라와 전해 들은 나라에 대한 구분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720년대 아랍과 페르시아의 정세 변동과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혜초가 대식국이라고 기록한 아랍에 분명히 갔으며 그 지점이 구체적으로 현재 이란의 동북부 지역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저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자漢字문명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식 현지 견문록을 남기고 인도와 페르시아 그리고 아랍과 중앙아시아에 관한 귀중한 지식을 소개하고 전달한 그 문명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저자의 독자적인 역량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그렇지만 현존 《왕오천축국전》의 사본이 저자의 견해대로 8세기 후반(일설은 9세기 초)의 것이라고 할 때,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이보다 앞서며, 755년에 쓴 《화엄경》이 두 책이나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주서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지적해 둔다.

그리고 노정의 처음 부분에서 저자가 기존의 나형국 경과 견해를 부정한 것은 재고를 요한다. 저자는 《일체경음의》에 수록된 나형국 단어를 페사리국의 나형 표현과 연관시켰는데, 《일체경음의》에 수록된 단어를 보면 현존 사본에서 확인된 피라날사 단어 앞에 8개 단어를 사이에 두고 나형국과 적가국이 나오므로(이 책 후반 수록자료 9~10쪽) 아직 인도에 이르기 전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그럴 경우 나형국을 니코바르 제도 등으로 비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에서 저자가 원문의 복원 그리고 현존 잔본 원문의 복원과 원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한 것은 지극

히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 다음 과제인 지명비정이나 노정확정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이 책의 중심을 차지하는 역주 부분이다. 크고 작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낱알이 지적하며 바른 원문확정과 번역 그리고 방대한 주석을 엮어가는 자세는 매우 진지하고 빈틈이 없다. 특히 그동안 저자가 쌓았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식견과 동서문화 교류에 대한 업적 등을 토대로 펼친 풍부한 주석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내기 힘든 탁월한 성과이다.

다만 기존의 이해와 다른 부분도 보인다. ‘우전于關’을 저자는 《고대문명교류사》와 같은 저자의 다른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우기’라고 표기하고 있는데(439쪽 등), 이것이 호탄Khotan을 가리키는 것임을 생각하면 피라날사(彼羅廣+尼斯)의 ‘피라날사’, 골달骨咄의 ‘골탈’ 표기 등과 함께 재고해야 할 것이다. 마하연(摩訶衍)을 ‘마가연’으로(156쪽), 가섭(迦葉)을 ‘가엽’으로(154쪽) 표기하고 칠석석굴(七葉石窟)은 ‘칠섭석굴’로(154쪽) 표기하는 등 불교적 용어의 표기가 상례에 벗어난 것도 가끔 눈에 띈다. 참차(參差)를 ‘참차’로 보아 ‘거의’의 뜻으로 본 것도(158쪽) 일반적 해석이나 《일체경음의》에서 참차라고 읽고 전후좌우라고 풀이한 것과도(참고자료 4쪽)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혜초와 《왕오천축국전》의 이해와 연구에 초석이 될 만한 뛰어난 성과이다. 이 역주본을 바탕으로 《왕오천축국전》 원문의 확정과 해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이루어낸 폭넓은 성과에서 시작하여 일찍이 세계를 향해 마음을 열었던 8세기의 세계인 혜초의 면모를 21세기에 보다 풍부하게 그리고 보다 깊이 열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안겨진 과제이다. **정병삼**